



참으로 어려웠던 60년대, 서울 변두리 국민학교 3학년 교실에서의 일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이라 학교에서는 미국원조로 만들어진 강냉이 빵이 급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강냉이 빵은 썩나물에 밀가루 버무리던 것도 없어서 허기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받은 빵을 학교에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영이는 반에서 결코 그 빵을 먹지 않는 유일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하셨고 몇몇 학생에게는 쓴 편지를 친구들 앞에서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 때 항상 조용하고 지쳐보인 채 학교다니던 민영이의 편지도 읽혀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엄마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엄마가 다시 일어나서 공장에 가시는 게 다행스러워요. 저는 엄마가 일을 일찍 마치는 공장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재용이(남동생)는 괜찮은데 재희(막내 여동생)는 맨 날 밤 만 되면 무섭다고 울어요. 제가 동생들을 잘 보아야 하는데 어떨 때는 문을 잠그고 있어도 저도 무서울 때가 많아요.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동생들 밥 챙겨 주는 것 밖에는 도울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엄마는 항상 우리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엄마가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엄마는 또 병이 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동생들을 더 잘 볼게요. 엄마는 저보고 학교에서 빵을 다 먹고 오라고 하시지만 꼭 참고 집으로 가져가서 동생들과 같이 먹는 게 나아요. 며칠전에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프고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다 먹고 갔는데 빵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을 보니 내가 너무 미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절대로 혼자서 빵을 다 먹지 않고 동생들과 나눠 먹을 거예요. 내년이 되면 재용이는 학교에 입학하니깐 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재희하고만 나눠먹으면 되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편지가 읽혀지는 동안 고개를 푹 숙으신 선생님은 이리저리 책상사이를 걸어다니시기도 하고, 우리를 등진 채 물끄러미 창 밖을 내다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한창 후에야 교단에 올라선 선생님의 눈에는 자욱히 눈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이리저리 다른 곳을 보시기도 하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애쓰셨지만 결국 교단을 내려가신 선생님은 출입문 쪽으로 돌아서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울고 싶어도 그 때까지 참고 있었던 아이들은 결국은 소리 없이 배어져 나오는 선생님의 눈물을 눈치 채고서야 마음놓고 울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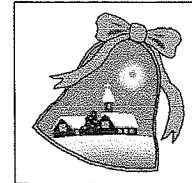
눈물젖은 빵도 사랑으로 나눠 먹던 그 시절,
눈물 없는 빵이라해서 사랑까지 사라진 오늘은 아닌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1)"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첫별을**▶ 어느 초등학교 "불조심"표어 공모 대부분이 '너도나도 불조심'등 거기서 거기. 지난번 6.25 상기 표어(6.25는 무효다 다시한번 물어보자)에서 최우수상 받은 아주 호전적인 그 학생. 이번에도 공격적인 표어로 상 받았다. **"산불난 농 오늘밤에 밤새도록 오줌싸라"**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4권 3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8월 25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황소와 나귀처럼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을 때 한 천사가 동물들을 비밀스럽게 불러 모았습니다. 마굿간에서 이 성스러운 가족을 도울 몇몇 동물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연히 동물의 왕인 사자가 맨 먼저 나섰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길 만한 자격을 가진 동물은 동물의 왕인 나뿐이지, 나는 아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물어 죽일 거야!"라고 사자는 으르렁대면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무섭구나!". 이 말을 듣고 여우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우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족을 잘 보살필 거예요. 난 매일 아침 산모를 위해 닭을 훔치고 하나님의 아기를 위해 가장 달콤한 꿀을 갖다줄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교활하구나" 그때 공작이 깃털을 뽐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작이 재빨리 깃털을 동그랗게 펼치자 깃털이 반짝거리며 빛났습니다.

"나는 초라한 마굿간을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치장할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허영심이 강하구나!"

많은 동물들이 차례차례 나와 자신들의 재주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천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는 황소와 나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니?" 나귀는 슬프다는 듯이 귀를 아래로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순종과 인내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나 몽둥이로 때려서 우리는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황소는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꼬리로 파리를 쫓아버릴 수는 있지요!"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책임자구나!"

엄마가 딸에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사람들은 너의 큰 아름다움보다
작은 것에
판단의 눈길을 보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앞아서 다리를 떨지 말아라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너도 가볍게 보인다
꼭 찬 수레는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6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4(시 100)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찬 송 Hymn 442 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이 광 희 장 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3:7-14(신 91)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회개' 김 성 국 목 사

찬 송 Hymn 410장 연 주 자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1절:남형진 성도 가족, 2절: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 성 국 목 사

◆8,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25	이광희	최재학	양경배, 김동숙	남형진, 이영숙	박일영, 사카시다
1	김영길	권용일	윤형권, 신영화	김경숙, 이재영	송영철, 윤형권
8	박일영	김경숙	박상욱, 이금선	김동숙, 양경배	이재영, 임성광
15	이재영	김영길	이재영, 김경숙	김미애, 조용건	전병주, 정관영
22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이기중	김순자, 정덕수	정덕수, 최득수
29	김순자	신경화	권용일, 이지영	노은숙, 최재학	최재학, 권용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풀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6시

■ 피아니스트 레너드 번스타인, 영화배우 손 코너리 출생. 이화여대 총장 지낸 김옥길 총장,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독일 철학자 니체의 사망....이 밖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25일에 태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어느 덧 8월 마지막 주일, 참으로 빠르게 지나는 세월에 우리도 삶의 시작과 나중을 다시한번 되돌아 봅니다



1. 등록하심을 함께 환영합니다
*김남희, 김미재 집사(태웅, 혜연). 요즘 lent house가 잘 만나 지지 않아 집이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2. 교우소식

- *이규임 권사. 한국방문 후 지난 월요일 귀국
- *정이지 집사. 친정 어머니 위독으로 목요일 한국행. 5자매 중 말팔인 정 집사님을 많이 의지하셨다는 모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카시다 집사님 부부의 영주권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감기가 유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 약도 드시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주일": 다음주일은 Father's Day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홀로 메시고도 무겁다 앉으시는 분, 아버지시며 남편이십니다.

4. 이삭줍기 봉헌주일: 한달간 모은 Silver Coin으로 동남아 2명의 어린이를 돕습니다

5. 제2여성교회 월례회: Tea Time 시간에 갖습니다

6. 당회: 화요일(27일). 저녁 7:30분 교회

7. 제남선교회 낚시대회(예고): 9월7일(토). 자세한 안내는 다음주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낚시꾼이 잡다 놓친 고기입니다. 모처럼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나들이. 낚시꾼의 악의없는 거짓말도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남선교회도 같이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진행: 김종원 집사

8. "살롱과 익투스"와 함께하는 수요일예배(예고)

*<일시> 9월 4일(수) 수요일예배 7:30 pm <장소> 본당

<9월의 교회행사>



일용한 양식...
새 달에도
주님의 보혈과 말씀
먹고 싶습니다

일자	주 일	주 중 모 임
1	성찬주일	살롱, 익투스 초청예배(4) 구역예배(6), 남선교회 낚시대회(7)
8	식사친교주일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0)
15		약속의 아비기도회(17) 3rd term break(20) 추석(21)
22		교역자 수련회(23) 안수집사회(24) 권사회(24)
29	이삭줍기주일	당회(30)